



4·10 총선에서 현명한 승자와 패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 새로운 미래 1, 개혁신당 3, 진보당 1, 조국 신당 12명으로 모두 300명의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선진국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소망을 국민 유권자가 받아들여 국회를 혁신하고 부패한 여당을 심판하며 정당보다는 새로운 인물 중심의 선거였다고 본다. 선거 결과 여소 야대의 불안정한 제22대 국회가 구성되게 되며 제22대 국회는 다수당인 야당은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새롭게 태어난 참신한 선진국 국회가 되어야 한다.

선거가 끝났지만, 국민 일각에서는 국회 혁신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회의원 수를 100명 선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복지혜택은 덴마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서 국회를 혁신하자는 내용임을 알아야 하며, 정당 지지도를 묻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조국 신당에 선호하고 있음은 국민이 어떤 정당을 바라는가를 알아야 한다.

당선된 후보자와 참모들도 낙선된 후보와 참모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당선자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낙선자는 쓰라린 패배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었다. 민주주의는 그 대표자를 선출함에 전원 참석 투표에 과반수의 찬 표를 받아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 선출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승자는 겸손해야 하고 겸허한 자세로 일관해야 하며 낙선자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은 철저히 실천할 수 있게 구상하고 노력해서 모든 유권자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그야말로 주권을 대표하는 참된 일꾼으로서 국회의 면모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불참하는 저의는 참신하다고 선출해 보내면 기존 오염된 정치 세력에 물들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당선만 되면 선거

동 기간에 겸손했던 자세는 어디로 가고 사무실의 문턱은 높아만 지고 민의를 외면했던 구정치인들이, 이번에 당선되어서는 안 될 사람도 정당이란 옷의 효과 때문에 당선되기도 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패자는 이번 선거에 패배했지만, 선거에 불참했던 유권자들이 나의 지지자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가 투표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하면서 승자인 당선자에게 축하와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는 것이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라고 본다. 현명한 승자는 실패한 패자를 자기편으로 끌어안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다.

패자는 지금까지 나를 도와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해 준 유권자들과 참모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의 정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분들은 낙선자 본인보다도 패배의 쓰라림을 더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들이 싹쓸이 당선을 보이는 것은 민의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은 당선자들의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선거 불참자들은 낙선자들의 지지자도 있다고 본다면, 상황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참신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선거 때가 되면 열일 버리고 자기의 주소로 가서 투표부터 하는 한국적 민주시민 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못 하도록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 불참을 막을 수 있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데, 선거 불참유권자는 소정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국적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명한 승자는 수많은 실패자가 있었기에 성공의 자리에서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존경받는 승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명한 실패자는 다시는 같은 방법의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성공의 꿈과 희망을 품고 새출발해야 한다. 현명한 성공자나 실패자나 언젠가는 다 같이 감격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노력했으면 한다.

칼럼

“불법주차 Outm 안심주차 In”

기고

곽병준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자연이 깨어나는 따스한 계절 봄이 다가왔다. 한겨울의 추위와 침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도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화재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도와 주는 중요 소방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불법으로 해당 시설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소방 활동에 직·간접적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해당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적극 홍보하여 주·정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안심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골 텃밭 마약 양귀비 재배 주의하세요

정선하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감



2024년이 시작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레이는 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특히 시장이나 꽃집 앞 꽃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중 관상용 양귀비 꽃을 보니 곧 언론을 통해 텃밭에서 치료용으로 마약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1년 10,626건, '22년 12,387명, '23년 1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골지역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심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88.5%가 60대였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군에서도 양귀비 밀집작으로 9명이 적발되었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 쓰여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노인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귀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전과 또는 즉결심판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 50주 이상 일 때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골에서는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함양, 진통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신경통,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텃밭 등에서 몰래 기르다 적발되곤 한다.

텃밭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꽃잎 중앙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보인다면 '마약'이니 주의를 당부드린다.

기고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우문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주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봄철 부주의,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지연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봄철 눈·발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기간 부주의의 의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도 겨울철보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등 화재가 발생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불티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속에서 부주의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봄철 부주의의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소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눈·발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무엇보다 한번 잿더미로 변한 우리의 산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사전 예방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습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 뿐 아니라 타인과 자연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